

10
용산 이전 10주년
10

국립중앙박물관, 2015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10
용산 이전 10주년

국립중앙박물관,
2015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김영나 Kim Youngna



EXHIBITION 8

상설전시
PERMANENT EXHIBITION

특별전시
SPECIAL EXHIBITION

새로운 기술의 활용
USE OF NEW TECHNOLOGY



LEARNING 34

교육
LEARNING



ARCHITECTURE 40

이 집이 담고 있는 것
WHAT THIS MUSEUM HOLDS

국립중앙박물관을 다시 찾으며
REVISIT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EPILOGUE 60

박물관의 미래
FUTURE OF THE MUSEUM



COLLECTION 66

새로운 소장품 10선
NEW ACQUISITIONS SINCE 2005



국립중앙박물관, 2015

용산 이전 10주년을 맞이하여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은 1945년 광복 직후, 일본이 설립했던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접수하여 시작하였다. 그 후 1968년에는 덕수궁미술관(주로 도자기, 회화 등을 소장하고 있던 '이왕가미술관'이 1946년에 '덕수궁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소장품을 흡수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제일의 고고학·미술사 박물관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박물관 기능을 하는 건물에 자리 잡지 못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전쟁 이후 부산의 임시박물관을 포함해서 도합 여섯 번 이사를 다니다가 2005년에 용산의 옛 미군기지 터에 웅장한 건물을 짓고 이전하면서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열었다.

용산에 새 등지를 틀기 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이 중심이었다기보다 연구와 보존에 중점을 두었고 상설전시 이외의 특별전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연면적 13만 7천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세우고 세계 7번째 규모의 대형 박물관으로 성장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넓은 상설전시장과 두 개의 특별전시실을 갖추게 되었고, 2008년 이후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여 일 년에 3백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면서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박물관의 지향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박물관이 고답적이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매력적이고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열린 박물관으로 변화하고자했던 지난 10년 간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ON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RELOCATION
TO YONGSAN

Kim Youngna
Director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45, just after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after thirty-five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former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established by Japan, was transformed in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46, the Yi Royal Art Museum, with a collection that consisted primarily of ceramics and paintings, changed its name to the Deoksugung Museum of Art; the collection of that facility was eventually transferr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1968. These two events provided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nation's premier museum of archaeology and art history. Despite this status, however, for more than fifty year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its collection led a nomadic existence, continually moving from one building to another, and never settling in a space designed specifically to serve as a museum. Between 1945 and 2004,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occupied six different locations, including its temporary relocation to Busan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The museum finally found its permanent home in 2005, with the opening of its new building in Yongsan, in an area that was once part of a U.S. military base. Indeed, the opening of this magnificent building represented the dawn of a new era for the museum.

Prior to the opening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new edifice in Yongsan, the museum focused primarily on research and preservation, rather than on attracting visitors. Only one or two special exhibitions were held per year, along with the permanent exhibitions. However, with the opening of the new building, with a total floor area of 137,000 m² on about 300,000 m² of la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uddenly became the seventh largest museum in the world. The beautiful structure includes vastly larger spaces for permanent exhibitions, as well as two galleries dedicated to special exhibitions. Starting in 2008, the museum began offering free admission, and attendance jumped to more than three million visitors per year. Having greatly increased its domestic reputation and popularity, the museum has now turned its eyes toward its next goal of becoming a renowned global institution befitting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book introduces the museum's diverse efforts over the past ten years to break away from the public perception of a museum as a dull, highbrow institution and to transform itself into an attractive, visitor-centered, open museum.

Exhibition

국립중앙박물관, 2015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신석기실
Neolithic Room





반가사유상실
Pensive Bodhisattva Statue Room



금관실
Gold Crown Room

상설전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와 문화를 이곳에서 확인하고 과거의 유물을 통해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 정체성 및 집단적 기억과 문화의 가치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시는 기본적으로 국사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Official History(正史)'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1층은 고고학과 역사학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부터 1940년대에 이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전시하였다. 2층과 3층은 소위 명작 위주의 미술품을 중심으로 회화, 조각, 도자기를 전시하는 한편, 기증실과 아시아미술 전시실도 조성하였다.

2005년 개관할 당시 박물관에는 정식으로 전시 디자인팀이 없었다. 그러므로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전공의 큐레이터들이 전시를 도맡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학구적이었으나 전시연출 등 여러 면에서 관람객에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진열 역시 벽에 고정시킨 진열장 바닥에 전시품을 놓는 방식이어서 전시실에 들어서면 전시품들이 한눈에 보이기보다는 벽부장 아래를 들여다보는 관람객들의 등이 먼저 눈에 띄었고 전시실 중앙은 비어있는 곳이 많았다.

PERMANENT EXHIBITION

The exhibi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sume the huge responsibility of reflecting the national identity, the collective memory, and the cultural values of Korea; as such, they represent a fundamental stance on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Essentially, the exhibitions are expected to serve as extensions of the national textbooks, and the narrative they provide must stay within the bounds of official history. With a strong emphasis on archaeology and history, the first floor of the museum covers the full history and culture of Korea from the Paleolithic Era to the 1940s. The second and third floors are devoted to artworks, featuring select masterpieces of painting, sculpture, and ceramics, as well as the Gallery of Donated Works and the Asian Arts Section.

When the museum opened the new building in 2005, there was no official Design Team on staff. The exhibitions were typically designed and presented by curators with expertise in archaeology, history, and art history. The contents, arrangement, and display of the exhibitions reflected an academic emphasis, rather than popular interest.



통일신라실
Unified Silla Room



금속공예실
Metal Crafts Room

2011년, 8명의 디자이너로 디자인팀을 만들고 나서 전시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학예직, 디자이너, 그리고 관리직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새롭게 전시실을 개선하였다. 우리 문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관람객 중심으로 흥미롭게 꾸미려는 시도를 하였다. 현재 상설전시실의 1/3 정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제일 먼저 변화를 시도한 곳은 상설전시실의 중간중간에 있는 독립공간들이었다. 이 공간은 반가사유상, 금관 등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소장품들을 한 점씩 전시하고 있는 특별한 전시실로, 관람객이 전시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어둡게 하고 조명을 개선하였다. 이후 불교조각실, 구석기실, 신석기실, 부여·삼한실, 가야실, 통일신라실, 조선실, 청자실, 금속공예실 등을 차례로 개편하였다. 전시 디스플레이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곳은 3층의 불교조각실이다. 이 전시실의 개선은 네덜란드 디자인 팀과의 협업을 통해,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YFM(Young Friends of Museum)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불교조각실은 높이 5.5미터에 달하는 넓은 공간으로

In 2011, the exhibition designs and display formats began to change under the guidance of the newly established Design Team of eight designers. Cooperation between the curators, designers, and administrators improved, with each group sharing its expertise in a collaborative environment. As a result, the exhibitions and facilities have been improving each year, with an emphasis on making the spaces more visitor-friendly and interesting for the audience, while continuing to effectively deliver Korean art and culture. As of this printing, about one-third of the permanent exhibition spaces have been newly redesigned.

The first areas to undergo renovations were the smaller independent spaces within the permanent exhibition halls. These independent spaces are dedicated to special exhibitions from the museum's collection, which often feature separate displays of major individual artifacts, such as gold crowns or the Pensive Bodhisattva statues. In order to highlight the featured works and direct the viewers' gaze, the lighting of the display cases was improved while the surrounding areas were made dimmer. In particular, the Buddhist Sculpture



불교조각실
Buddhist Sculpture Room

높이 약 3미터, 무게 6톤이 넘는 철불을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걸친 대표적인 불교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다. 원래 이 전시실은 삼면이 모두 유리로 되어 야외에 놓인 조각과 같은 효과를 내려고 했으나 기대와는 달리 날씨에 따라 햇빛이 넘쳐흐르거나 흐린 날에는 잘 보이지 않아 관람객들이 훌쩍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전시실이었다. 디자이너들은 개선책으로 암막의 금속 스크린을 이용해 3면의 유리를 막고 스크린에 연속적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빛이 그 구멍으로 비쳐 들어오도록 개선함으로써 마치 종교적 사원에서 느껴지는 숙연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였다.

Room on the third floor received the most dramatic makeover, in a project sponsored by YFM (Young Friends of Museum), in collaboration with a Dutch design team. With very high ceilings (5.5 meters), this gallery offers wide spaces to house representative Buddhist sculptures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o the Goryeo Dynasty, including a massive iron Buddha that is about three meters tall and weighs more than six tons. The space was originally created with three glass walls, in order to convey the feeling of an outdoor sculpture park. Unfortunately, this meant that the atmosphere of the room was entirely dependent on the weather; on sunny days, the space was exceedingly bright, while on cloudy days, the space was too dim. As a result, the space became a quick stop for most visitors, who peeked inside before moving on. To remedy this situation, the designers blocked the glass walls with metal screens filled with small holes. These screens allow a suitable amount of outside light to fill the space, creating a solemn, meditative atmosphere akin to visiting a temple.



가야실
Gaya Room





루브르박물관, 16~19세기 서양 회화 속의 풍경(2006)
Louvre, Western Landscape from the Six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2007)
Yoshinogari, Ancient Korean Culture in Japan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 묘지명(2006)
Goryeo Epitaphs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2008)
Echoes of Life: the Enduring Tradition of Unified Silla Sculpture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2008)
The Glory of Persia

특별전시

2005년 용산 이전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진정 글로벌한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재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전시하고 감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전까지 이러한 전시는 주로 기획사에서 블록버스터 전시를 목표로 들여오기는 했지만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산으로 이전한 다음에는 세계의 주요 문명을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잇달아 열었다. ‘루브르박물관전, 16~19세기 서양 회화 속의 풍경’(2006),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2007),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2008),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2009), ‘태양의 아들 잉카’(2009), ‘그리스의 신과 인간’(2010), ‘실크로드와 둔황’(2010),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2011), ‘터키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2012), ‘마야 2012’(2012), ‘유리, 삼천년의 이야기’(2012), ‘미국 미술 3백년’(2013),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2013), ‘이슬람의 보물, 알사바 왕실 컬렉션’(2013),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2014),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 오르세미술관전’(2014),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2014) 등이 지난 10년간 선보였던 전시였다. 이렇게 세계 문명 전시를 시도한 것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여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며, 또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해외의 문화와

SPECIAL EXHIBITIO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continually hosted major special exhibitions on Korean artifacts and culture. But with the opening of the Yongsan building in 2005, the overall vision expanded, as the entire institution sought to make a great leap forward to become a truly global museum. In order to do so, the museum had to expand its focus beyond purely Korean exhibitions to encompass cultural heritage from all over the world. Prior to that time, most international exhibitions in Korea were conducted by private museums and institutions, with the goal of creating blockbuster events that would bring as many people as possible through the doors. Since then, howeve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hosted a number of special exhibitions focusing on international cultures, including *Louvre, Western Landscape from the Six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ies* (2006); *Yoshinogari, Ancient Korean Culture in Japan* (2007); *The Glory of Persia* (2008); *Egypt, the Great Civilization: Pharaohs and Mummies* (2009); *Inca, Son of the Sun* (2009); *Art and Life in Ancient Greece* (2010); *Princely Treasures: European Masterpieces 1600-1800 from the V&A Museum* (2011); *The Civilizations of*



이집트 문명전, 파라오와 미라(2009)
Egypt, the Great Civilization: Pharaohs and Mummies



실크로드와 둔황(2010)
Silk Road and Dunhuang



고려불화대전(2010)
Masterpieces of Goryeo Buddhist Paintings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2010)
The Royal Tomb of Silla, Hwangnamdaechong

미술을 국내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는 특별전시도 계속 이어 왔다. 용산에 자리 잡은 뒤에는 소장품에 대한 조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특별전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신라의 불교조각을 집대성한 ‘영원한 생명의 울림, 통일신라 조각’(2008) 전시를 개최하였고, 국내외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고려불화를 전시한 ‘고려불화대전’(2010)을 열었다. 2006년에는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평양의 조선력사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문화재 90점을 대여하여 최초로 전시하였고, 2011년에는 145년만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를 국민들에게 선보였다(‘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이 밖에도 ‘다시 보는 역사 편지, 고려 묘지명’(2006), ‘황금의 나라, 신라의 왕릉, 황남대총’(2010), ‘초상화의 비밀’(2011),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2012), ‘천하제일 비색청자’(2012), ‘한국의 도교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2013), ‘산수화, 이상향을 꿈꾸다’(2014), ‘조선청화, 푸른빛에 물들다’(2014) 등을 개최하여 우리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였다.

Turkey: Emperors in Istanbul (2012); *Maya 2012* (2012); *Art Across America* (2013); *Art from the Islamic Civilization - from The al-Sabah Collection, Kuwait* (2013); *Ancient Civilization in Vietnam* (2014); and *Beyond Impressionism: Masterpieces from the Musée d'Orsay* (2014). Of course, these international exhibitions on world civilizations are designed to be popular for visitors, but they are also intended to enhance Korea's cultural diversity and help Koreans adapt to the ever-changing world. Moreover, they also offer Koreans the chance to experience international art and culture in their own country, when they cannot go abroad.

Meanwhile, the museum continued to host major special exhibitions on Korean artifacts and culture, including *Treasures from Pyongyang* (2006); *Echoes of Life: the Enduring Tradition of Unified Silla Sculpture* (2008); *Golden Splendors: The Royal Tomb of Silla, Hwangnamdaechong* (2010); *Masterpieces of Goryeo Buddhist Paintings* (2010); *The Secret of the Joseon Portraits* (2011); *The Best under Heaven, the Celadons of Korea* (2012); and *Taoist Culture in Korea: The Road to Happiness* (2013).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2011)
Princely Treasures: European Masterpieces 1600-1800 from the V&A Museum

초상화의 비밀(2011)
The Secret of the Joseon Portraits



그리스의 신과 인간(2010)
Art and Life in Ancient Gree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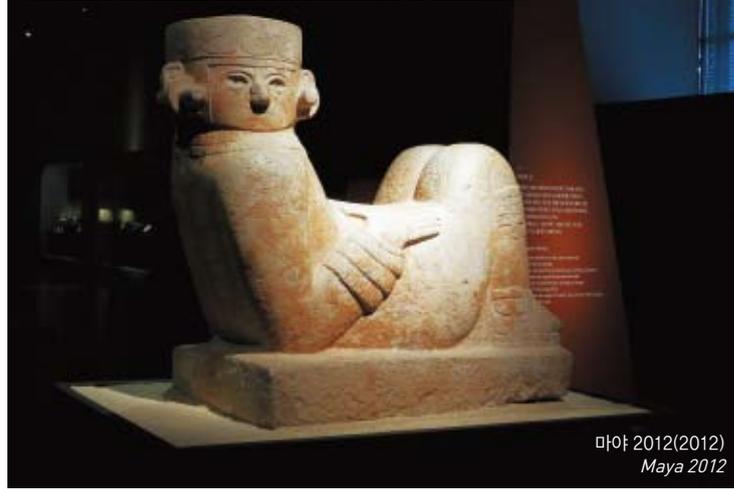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2011)
The Return of the Ogyujanggak Uigwe from France



조선묘지명(2011)
Epitaphs of Joseon Dynasty



미국, 한국미술을 만나다(2012)
Korean Art from the United States



마야 2012(2012)
Maya 2012



유리, 삼천년의 이야기(2012)
History in Glass: 3000 Years of Glassware from the Mediterranean and West Asia



타임캡슐을 열다, 색다른 고대 탐험(2012)
Opening the Time Capsule: Wondrous Expedition to the Past

세계 문명전에서 큐레이터와 디자이너들은 해당 문명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한편 전시 디자인을 통해 관람객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맛볼 수 있게 하였다.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에서 온 '바로크·로코코 시대의 궁정 문화'전에서는 18세기 로코코 시대의 실내 장식처럼 패널과 유리벽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가볍고 경쾌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쿠웨이트 왕실의 알 사바 소장품이 전시된 '이슬람의 보물'전에서는 9미터의 대형 카펫을 전시장 중앙에 놓고, 작은 아케이드에 그들이 자랑하는 크고 화려한 보석들을 전시하였다. '베트남 고대 문명전'에서는 동선(Dong Son)문화를 대표하는 11개의 청동북을 둥근 원탁 위에 놓고 주변 공간을 청동북 문양에 나오는 고대 베트남인들의 패턴을 이용해 마치 설치미술처럼 전시하였다.

The curators and designers of these exhibitions have successfully introduced the respective international cultures through representative artworks and artifacts, while creating an exotic ambience and attractive displays that allow visitors to freely indulge their own particular interests. For example, in *Princely Treasures: European Masterpieces 1600-1800* (2011), panels and glass walls were connected to recreate the interior design of eighteenth-century Rococo style, imbuing the space with a buoyant, cheerful, and elegant mood. For *Art from the Islamic Civilization* (2013), a huge carpet (nine meters long) was rolled out in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space, with small arcades on either side displaying the large, lavish jewels that were the highlight of the collection. For *Ancient Civilization in Vietnam* (2014), eleven bronze drums representing the Dong Son culture were displayed on a round table, and the surrounding space was decorated with the same ancient Vietnamese patterns that could be seen on the drums, such that the entire space had the effect of an installation work.



터키문명전, 이스탄불의 황제들(2012)
The Civilizations of Turkey: Emperors in Istanbul



미국 미술 3백년(2013)
Art Across America



이슬람의 보물, 알사바 왕실 컬렉션(2013)
Art from the Islamic Civilization - from The al-Sabah Collection, Kuwait



베트남 고대 문명전, 붉은 강의 새벽(2014)
Ancient Civilization in Vietnam



한국의 도교문화, 행복으로 가는 길(2013)
Taoist Culture in Korea: The Road to Happiness



싱가포르의 혼합문화 페라나칸(2013)
The Peranakan World: Cross-cultural Art from Singapore and the Straits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 오르세미술관전(2014)
Beyond Impressionism: Masterpieces from the Musée d'Orsay



외규장각 의궤 삼차원 영상
3D Video of the Oegyujanggak Uigwe



새로운 기술의 활용

전시실 개선 과정에서 늘 이슈가 되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이다. 몇 년 전만 해도 테크놀로지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실제 작품의 감상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2015년 현재 이러한 시도는 박물관에서 더 이상 낮은 것이 아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 박물관이 테크놀로지를 처음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은 프랑스 해군이 약탈했던 외규장각 의궤 297권이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개최한 '145년 만의 귀환,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시였다(2011년). 왕실의 규범과 행사를 기록한 의궤를 선보인 이 전시는 기본적으로 책 전시였기 때문에 쉬운 전시는 아니었다. 그러나 전시 팀은 의궤에 기록된 왕실의 행렬을 그린 반차도를 디지털 삼차원 영상으로 재현하여 관람객들이 실제 행진에 참여하는 듯한 효과를 주었다. 또, 전시가 끝난 후에는 외규장각 의궤 특별 공간을 박물관 누리집에 설치하여 온라인 방문자들이 가상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USE OF NEW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renovating the exhibition space, one issue that is always at the forefront of the discussion is the role and extent of the technology to be used. Today, visitors have come to expect a certain level of digital and IT technology at museums. Marking a significant confluence of the traditional and the contemporar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incorporated technologies developed by leading Korean companies. One of the first exhibitions to feature a notable use of technology was *The Return of the Oegyujanggak Uigwe from France: 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2011), which commemorated the return of 297 *uigwe* books of historical records, which had been taken from Korea by the French navy in 1866. The *uigwe* document the royal protocols and ceremonies of the Joseon Dynasty in both words and illustrations, but they are essentially books, which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display. Thus, the team in charge of this exhibition took a painting of a royal procession from the *uigwe* books and reproduced it as a three-dimensional digital video, effectively allowing visitors to feel as if they were marching in the actual procession.

최근 새롭게 개편된 통일신라 전시실과 금속공예 전시실에는 디지털 돋보기(digital interactive display)를 설치하였다. 디지털 돋보기란 전시품을 화면에서 확대하거나 360°로 돌려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아주 작고 섬세한 대상이나 세밀하게 그려진 회화의 경우, 보고 싶은 부분을 관람자들이 조정하여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현재 전시실 전체에 엔에프씨(NFC Near Field Communication)와 비콘(Beacon)을 활용하려고 작업중이다. 엔에프씨(NFC)가 지원되는 스마트폰으로 전시관에 부착된 엔에프씨(NFC) 태그를 터치하면 관람객들이 궁금해하는 전시품에 대한 사진과 상세 정보가 떠오른다. 전시품 사진과 함께 감상평을 페이스북(Facebook)이나 트위터(Twitter) 등으로 공유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누리집이나 엔에프씨(NFC) 같은 도구들은 박물관에 오지 않는 사람들, 또는 글로벌 온라인 방문객들이 우리 박물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를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한 사례가 '스마트 큐레이터'이다. 이는 교사,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직업, 성별 및 연령의 관람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관료의 길'은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시해설사가 여러 전시실을 관람객들과 함께 돌면서 조선시대 관료의 초상, 과거에 합격해 급의환향하는 모습을 그린 회화, 관리원 증명서, 마패, 손님을 맞이하던 사랑방 등을 해설하여 현재의 자신과 몇 백년 전의 관리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이들에게는 미리 태블릿 PC를 한 대씩 대여해 주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은 자료도 이 태블릿 PC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큐레이터'는 부부의 초상이나 편지 등을 소재로 한 '사랑은 아름다워'나 '조선의 국왕' 등 10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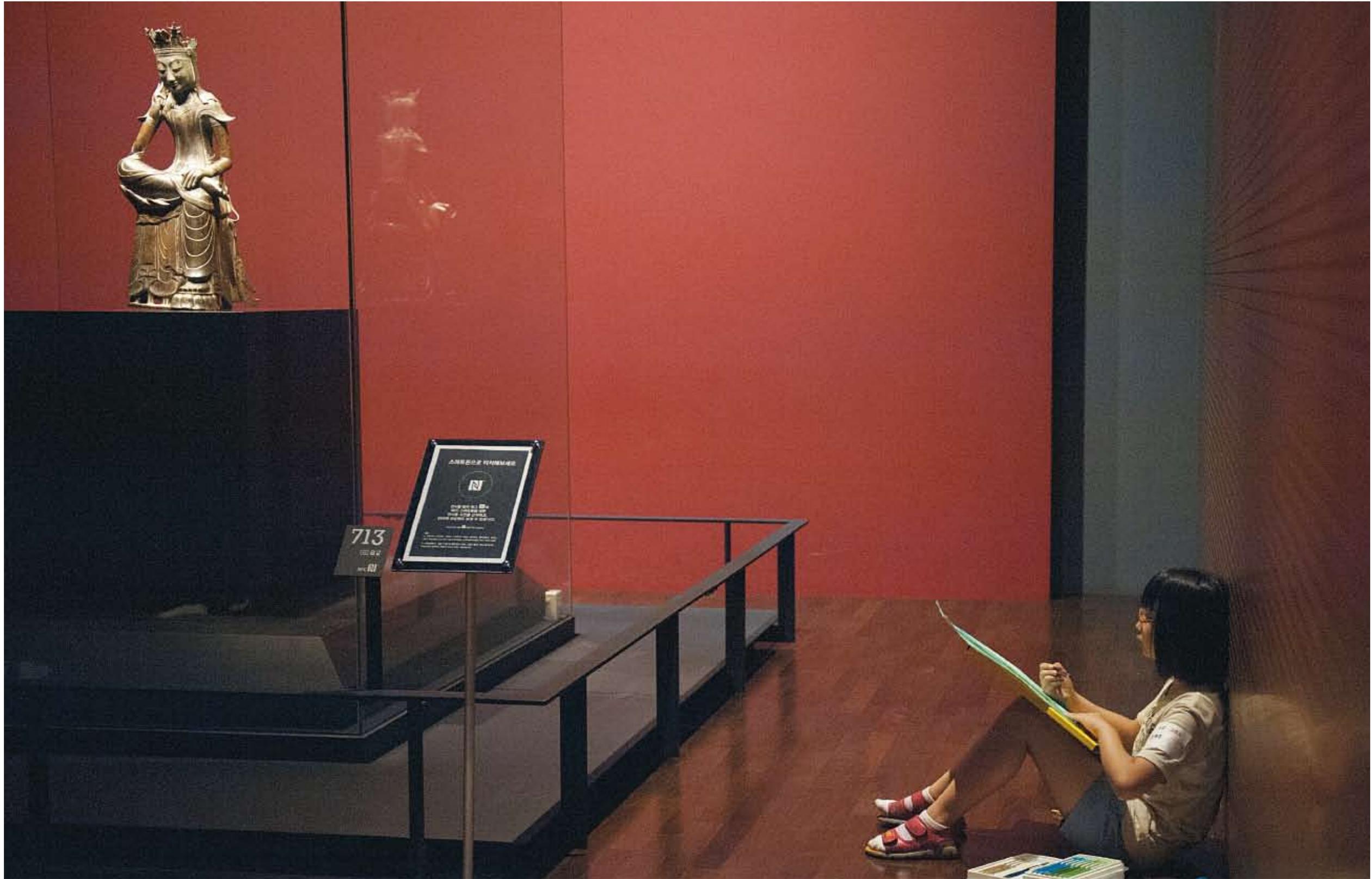


After the exhibition was over, the digitized pages of the *uigwe* were added to the museum's website, providing internet users with a museum experience by letting them virtually explore the *uigwe* online.

Recently, the Unified Silla Gallery and Metal Craft Gallery were renovated to include a digital interactive display, which allows visitors to enlarge a chosen object

and rotate it 360 degrees to examine and appreciate all of its fine details. In addition, the museum is in the process of adopting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all of the galleries, allowing visitors to receive photos and enhanced descriptions of displayed objects through their smartphones. The description and photos can be saved to their phone or shared with friends through Facebook or Twitter. Studies have shown that around 80% of Koreans are now using smartphones, the majority of which support NFC technology. Most importantly, this digital technology provides people around the world who cannot come to the museum with access to our resources and collection.

The museum is also continuing to develop its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Smart Curator" system, which provides enhanced information about the exhibitions through the use of tablet PCs. This system has enabled the museum to create various programs that are customized to meet the needs of different types of visitors, according to occupation, gender, age, etc. For example, special programs have thus far been created to cater to government employees, military professionals, and teachers. One of the programs developed for government officials is the "Path of Joseon Government Officials," wherein a docent leads the visitors through various galleries, introducing and explaining artifacts and works related to Joseon officials, including portraits and ID certificates of government officials, the badge of a secret royal inspector, and a full replica of a reception room(*sarangbang*) from the home of a Joseon literatus. Hence, today's government officials can vividly experience the lives of their predecessors from hundreds of years ago and compare that experience with their own daily lives in the present. Each participant in the program is given a tablet PC that includes information on other related materials that are not housed in the museum. Thus far, the "Smart Curator" system includes about ten different programs, all of which have received terrific feedback.



Learning

국립중앙박물관, 2015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어린이박물관
Children's Museum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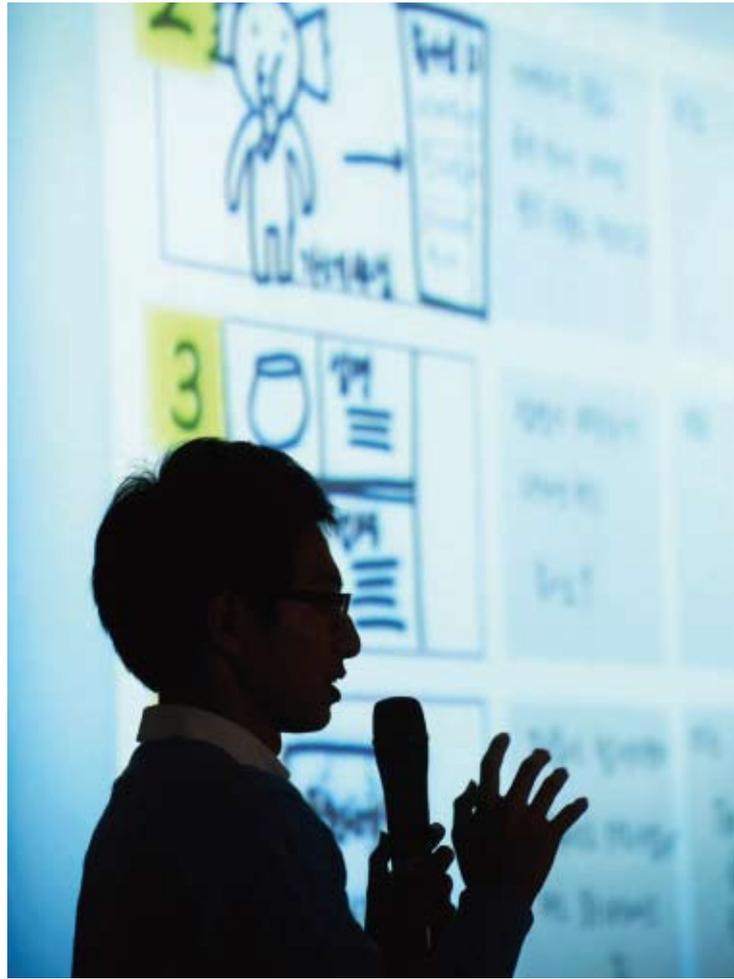
용산으로 이전한 다음 가장 눈에 띄게 발전한 곳은 어린이박물관이다. 약 5~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박물관은 2010년에 전담부서인 어린이박물관팀을 신설하고 체험 공간이나 특별 전시, 도시락 공간과 휴게실들을 새롭게 꾸미면서 초기에는 약 30만에 불과하던 어린이 관람객이 이제는 일 년에 거의 70만을 넘기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사회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성인·전문인력 등 다양한 연령대와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재들과 전시 내용을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관 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감상 영역을 마련하고, 특별하게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러 계층에게 박물관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명망 있는 인문학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인 '토요일 오후, 인문학 정원'과 '박물관 역사문화 교실'을 마련하여 청중들에게 인문학적 사고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LEARNING

The area of the museum that has been most notably developed since the relocation to Yongsan is the Children's Museum, established in 2010, which focuses o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five and nine. New spaces offering hands-on experiences and activities for children have been developed in the Children's Museum, along with special exhibitions, a cafeteria, and lounge. As such, the number of children visiting the museum has vastly increased, from around 300,000 per year in the first years after relocation to more than 700,000 per year at present.

Another notable development has been the museum's renewed emphasis on its social and educational function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for certain ages and audience groups—including adults, teens, and different professions—helping people learn from the museum's artifacts and exhibitions in a familiar and thoughtful way. In addition, haptic interaction has been prepared in the galleries to provide visually handicapped visitors with greater access to the displays. Special programs have been created



이처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박물관은 문화로 소통하고 즐기고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교육 부분은 앞으로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개발할 계획이다.

for people with various special needs,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so that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can enjoy and benefit from the museum's contents. Furthermore, numerous lecture programs for adults have been offered, featuring renowned scholars from various fields. Through such programs, visitors are inspired to think more deeply about the humanities, as they learn about various aspects of both Korean and international history and cultur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diverse educational program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been reborn as a new cultural space where people enjoy, participate in, and communicate with culture. The museum will continue to develop more educational programs to serve as the lifeblood of our institution.



Architecture

국립중앙박물관, 2015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이 집이 담고 있는 것

박승홍
국립중앙박물관 설계자

이제 이 집을 설계하기 위해 첫 스케치를 한 지 20년이 된다.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원래는 섬같이 고립된 땅이었다. 주변의 무엇과도 함께 있지 않고 멀기만 한 외로운 땅. 몽고군, 일본군, 미군의 주둔지까지, 용산의 이 땅은 우리 땅에 있으면서 한 번도 우리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래서, 이 집이 이 땅에 깊이 뿌리내리며, 이 땅의 빛과 바람과 낙엽으로 지어지기를 바랐다. 그런 집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혼을 담고, 땅과 한 덩어리가 되어 어울리기 때문이다. 또 그런 집은 더 많은 우리가 찾아와 집터는 더 이상 남의 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기 위해 두 개의 벽을 세웠다.

두껍고 무거워서 아무도 감히 움직일 수 없는 두 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담고 싶은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웠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 사는 사람들, 그들의 얘기, 우리의 얘기들로.... 이렇게 담은 것들은 이제 누구라도, 무엇으로도 망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다.

나는 무겁고 단단한 집을 원했다. 자연과 빛, 바람과 땅, 그리고 사람을 담고 있는 건축, '나'를 만나게 하는 건축, 가장 오래된 것들, 타협이 없는 것들, 저마다 당당한 존재의 이유와 각색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는, 산 같은 집.

언제부터인가 그 담는다는 것이 모든 것의 이유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이 집도 낡은 도자기, 오래된 글씨, 잊혀진 예술, 정지된 시간을 담은 곳이다. 새것들의 냄새로 가득 찬, 넘치는 풍족함에도 허전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의 바쁜 일상을 잠시 떠나 우리 옛것의 소박한 삶과 마음의 향기를 맡으러 오는 것이다. '우리'를 만나는 곳, '나'를 만나는 곳이다. 건물을 보러오는 곳이 아니다. 이 집은 단지 '담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언저리까지 물이 차는 못을 만들었다. 그 못을 둥글게 만들고 꿈으로 채웠다.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꿈, 선조의 정신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는 꿈을. 우리 마음 속 못의 마지막 언저리까지, 얇게 만들어진 못 바닥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될 때까지 채웠다.

그런 다음에, 집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 남과 북이 만나는 곳, 과거와 현재, 시간과 공간이 하나 되는 곳이다. 지붕이 있지만 바깥이다. 그래서 감당 못할 뜨거운 햇빛도 있고, 그늘도 함께 한다. 쓸쓸히 낙엽이 굴러다니고 차가운 바람도 들이치고, 그러다 다시 봄 햇살이 드는 곳이다.

이곳을 향해 여러 길목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든다. 만남과 희망을 노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마당, 이곳에서 우리는 나 이외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고,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비어 있어도 좋을 것 같았다.

이 집은 정남향을 보고 있기에, 서빙고 길에 도달한 방문객에게 마치 먼 곳을 보고 있듯, 탄성을 부리듯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여기 이곳이 아닌 더 넓은 곳, 지금 당장이 아닌 좀

WHAT THIS MUSEUM HOLDS

Park Seunghong
Architec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wenty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I sketched the first design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day, the area in Yongsan where the museum is located is a thriving place, full of people, but it used to be like an island, distant and unconnected to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This is understandable, since the land had primarily been used for foreign military bases: first the Mongolians, then the Japanese, and finally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site was located in Korea, the land was never truly ours.

As such, I wanted this building to be deeply rooted in our land, and to be built with the light, wind, and falling leaves of Korea. As a place that would be visited by many Koreans, the museum could not be part of any other country's territory. With this in mind, I first erected two huge walls that could never be moved, and then I filled the space between the walls with everything we want to keep and protect: the lives and stories of all Koreans of the past and present. I wanted to emphasize the weight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 to create an architecture that holds nature, light, wind, land, and people, a place where visitors encounter themselves. Like a mountain, the building holds the most ancient elements: the artifacts that have persevered, each with its own firm truth and dignified reasons for exis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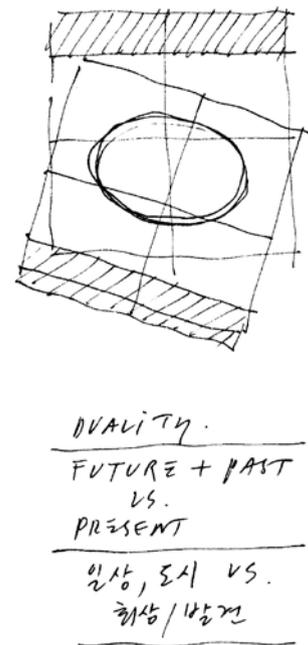
At some point, I started to consider the concept of "holding" or "storing" a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tructure. This building holds ancient ceramics, writings, and art, representing pauses in time. We come here to smell the fragrance of the past, to temporarily break away from our hectic lives, which are saturated with an abundance of new things, and yet remain vacant. Here, we meet ourselves, and I meet myself.

I made a round pond, brimming with water, to hold our hopes and dreams: the dream of reuniting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dream of our body living in harmony with the mind of our ancestors. Just as our mind is filled with such dreams, the pond is filled to the rim, so that a shallow pond becomes a bottomless abyss.

Next, I made a big hole in the center of the building, to be the place where different elements come together: North and South Korea, the past and present, time and space. Although the hole is covered by the ceiling, it is still part of the outdoors, filled with shadows and the searing light of the sun. Dry leaves blow through in the cold autumn wind, until the bright sunlight of the spring returns.

People follow various paths to gather in this open area. In this space, we sing for our hopes, share our encounters, and tell our stories. Here, we learn to form relationships with everyone and everything, and we realize that we are never alone, always together. Such space should not be filled or enclosed, but empty and open.

Facing south, the building seems to avert its eyes from those arriving via Seobinggo-ro Road. This sense of distance and indifference is intentional, emphasizing the wider space, rather than the space right "here"; the distant future, rather than the "now"; the eternal principles, rather than the values of today. This architecture needed to enhance the flourishing of higher meanings and hopes. Now, the area is no longer lonely, like an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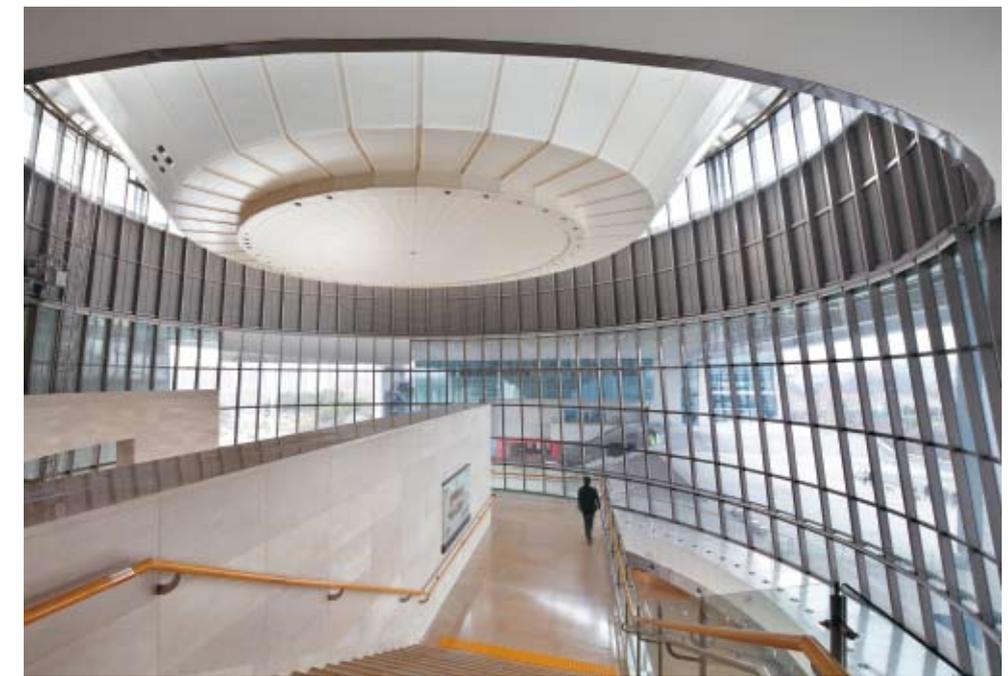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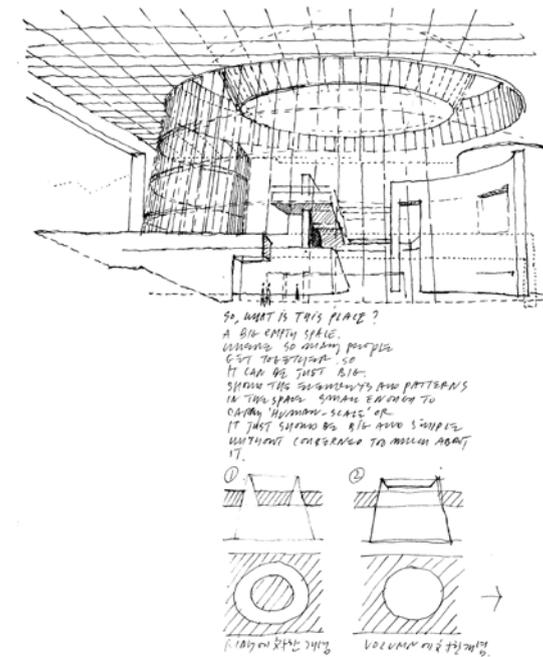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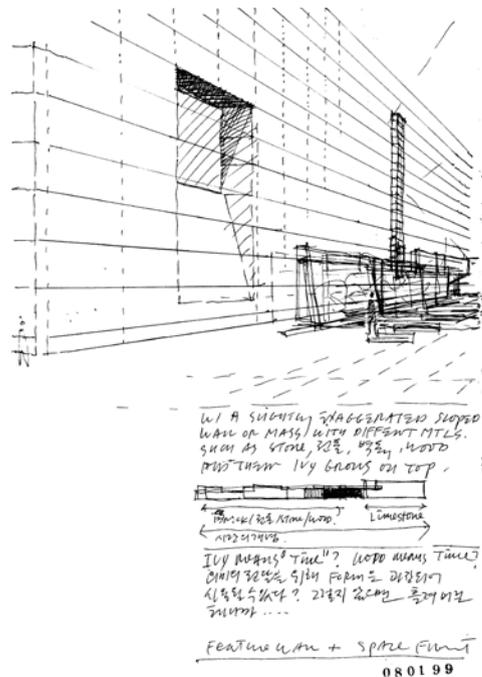


더 훗날, 오늘의 가치만이 아닌 영원한 가치, 그 모두를 우리 마음에 두고 넉넉히 품고자 하는 뜻이다. 더 많은, 더 높은 의미와 희망들을 꽃피우기 위해서이다. 이제는 섬처럼 외로웠던 땅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담고 있는 땅이다.

그 후 10년. 여러 이유로 자주 들른다. 그러나 건물은 관심이 없다. 돌아와 찍은 사진을 보면 온통 사람들 모습뿐이다. 설계와 공사, 꼬박 10년을 나는 이 집이 사람들로 넘치는 모습을 상상하며 퇴약별과 먼지바람과 망치소리가 정신을 뺏어가는 현장에 서 있었다. 내 집인 것처럼 속상해 하고, 설계대로 안돼서 욕하고 원망하곤 했는데... 박물관이 문을 연 후에야 알았다. 그 곳에 부은 나의 모든 것, 내 손때, 작은 흔적조차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의 거리’를 걸을 때는 저자 거리 한복판을 걷는 것 같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분주한 움직임과 가벼운 부딪힘, 시간의 여행,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내키는 대로 흘러가는 발자국들. 이제 그들과 함께 이 거리를 같이 웃고 거닐고 이야기할 수 있어 무엇보다 좋다.

이 집이 담고 있는 끝도 없는 이야기들, 선조들의 정신과 예술, 그들의 하루, 한 시대, 지금 우리의 소망, 살아가는 모습.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그 속의 작은 하나가 되어 행복하다.



instead, it is the land that holds each and every one of us.

After ten years, I still regularly visit the museum, but the building itself is no longer my primary interest. Now when I come, I take photos of the people I see, rather than the building.

Whenever I was on-site during the ten years that it took to design and construct this building, I would lose myself in the blazing sun, the dusty wind, and the hammering noise, imagining this architecture filled with people. As if it were my own home, I was obsessed with every detail, and I sometimes got upset when something did not perfectly match the design. But after the museum opened, I soon realized that all of my work that had gone into the building, right down to the smallest traces, was no longer mine.

Walking the “Path to History” feels like walking through the hustle and bustle of a traditional market, with all its energy and life: buyers and sellers, busy people rushing and jostling past one another, the perpetual motion of the escalators, and the carefree flow of footsteps. Today, I am most delighted when I can smile, talk, and walk along these streets together with people.

This architecture holds so much: endless stories, the mind and art of our ancestors, the days and eras of the past, along with how we live today and our hopes for the future. I am more than content to be a small part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건축 중인 모습 (2003.11.)
View of the museum under construction









국립중앙박물관을 다시 찾으며

권문성
건축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언제나 여유 있는 서빙고로를 지나면 용산공원의 녹지 속에 화강석의 거대한 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긴 수평선의 벽체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녹음 위로, 조용하고 당당히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다.

들어서며 보이는 벽은 시원하게 열린 빈 공간이 주인공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 비워진 곳은 사진 액자가 되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친근하게 가슴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남산이 그곳에 있다. 멀리 보이는 남산의 푸른 숲은 박물관 앞의 너른 숲으로 이어져 하나가 된 모습이다. 이제 울창한 숲으로 느껴질 정도의 박물관 앞 정원에서 시민들은 오래된 석탑과 석불상 등을 만날 수 있다. 빼어난 석조 조각품들에 담긴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고 이곳까지 오게 된 이야기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푸른 하늘과 나무그늘, 또 애잔함으로 감싸인 사색의 장소다.

정원의 중심은 '거울못'이다. 비스듬히 벌은 박물관의 벽은 잔잔한 물 속에서 흔들린다. 숲에서 이어져 들어서는 '청자정'은 '거울못' 속의 정취를 담아내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명랑하게 자리 잡고 있다. '거울못'을 끼고 돌아 올라가는 너른 계단은 박물관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며 그 경로와 풍경은 산사를 찾아 천천히 올라가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박물관 속으로 들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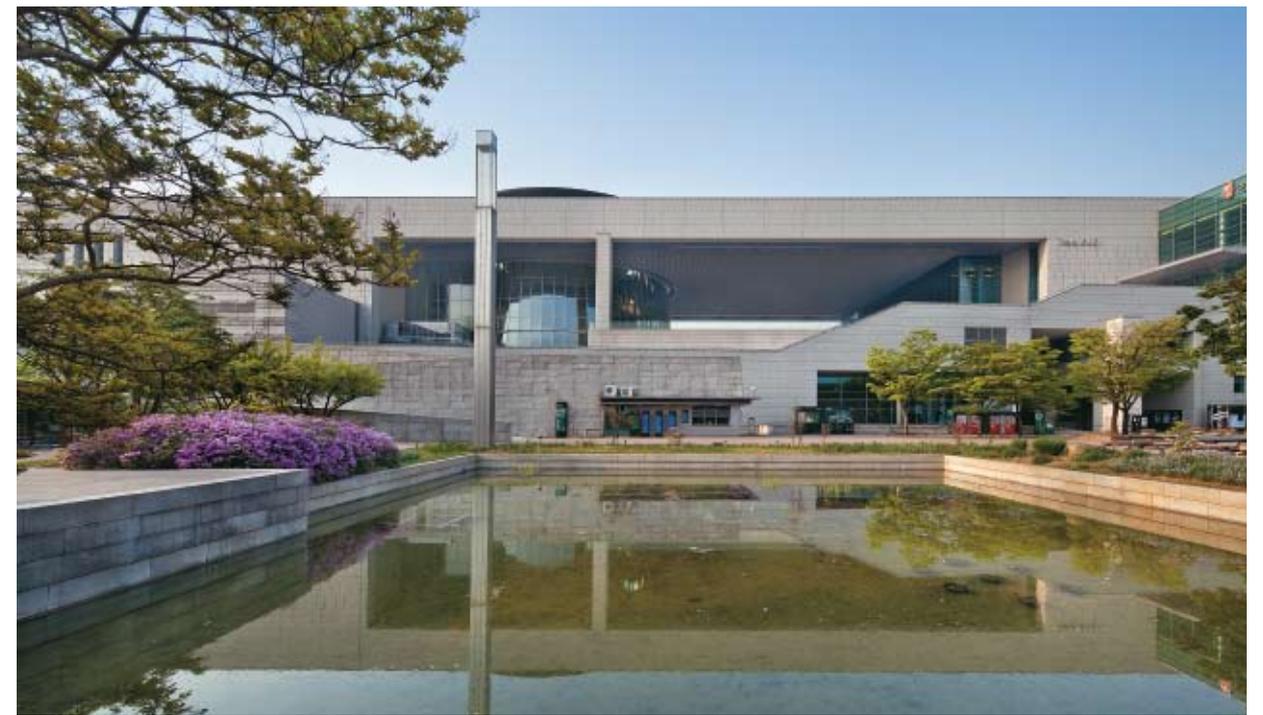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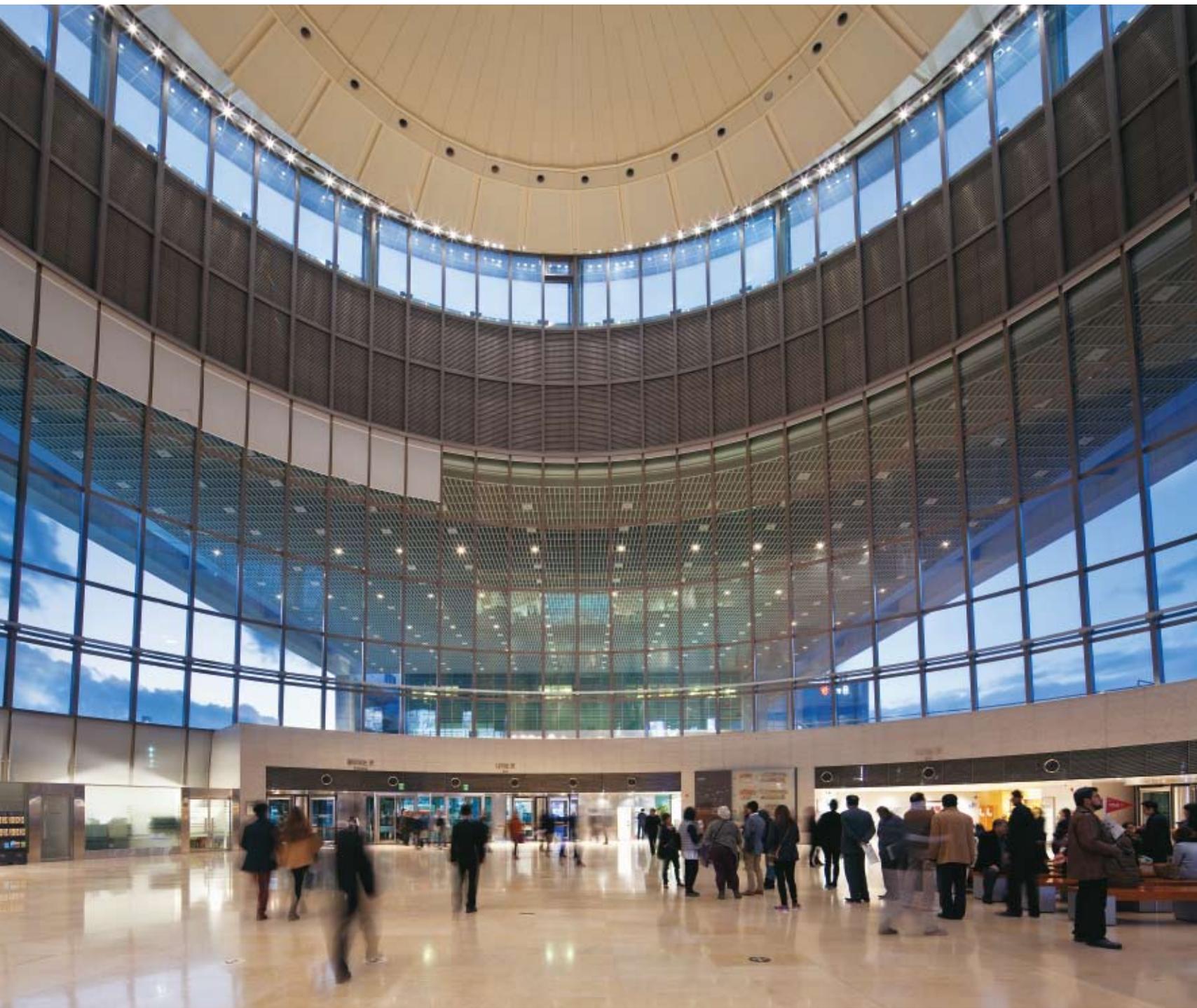
REVISIT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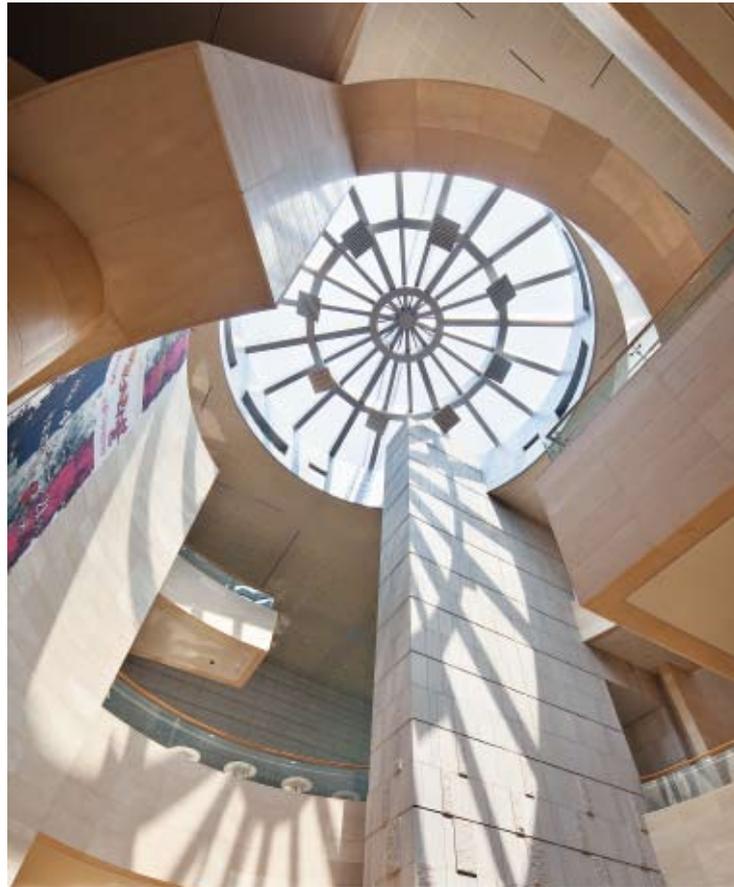
Gwon Moonsung
Architect,
Professor of Sungkyunkwan University

After Seobinggo-ro Road, the huge granite wall in the green area of Yongsan Family Park grabs my attention. These days, it is rare to find such a long wall in the city, giving it a quiet majesty that balances well with the verdant trees that have grown so well from their strong roots. For me, this is the atmosphere that exemplifi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eople visiting the site are first struck by the sight of the wall, which leads them to the stunning realization that the wide rectangular opening in the wall is the real highlight. For therein, framed like a perfect photograph, is the visage of the beloved Mt. Namsan, a sight that is dearly familiar to all the citizens of Seoul. The green forest surrounding Mt. Namsan in the distance leads to the wide forest in front of the museum until they eventually merge, as if the museum's garden is merely an extension of the forest. The garden is a contemplative space where visitors can sit in the shade of a tree beneath the blue sky, soaking in the peaceful ambience.

The centerpiece of the garden is the Mirror Pond. The wall of the museum stretching out horizontally seems to waver in the quiet water of the pond. The sentiment of the Mirror Pond is held in Cheongjaeong Pavillion, which joins the pond to the forest, a sparkling locale





전부터 오랫동안 이어온, 한반도 곳곳에 우리 조상이 만든 공간과 환경들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만들어 놓은 건축가의 공간전시를 먼저 만나는 느낌이다.

광장은 박물관 속의 큰 길로 이어진다. 그 길 옆으로 들어선 전시장은 도시 속 가로에서 만나는 건물과 집처럼 느껴진다. 모든 전시를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길에 다시 들어서면 다음 집을 만나는 느낌으로 박물관을 찾게 된다.

이렇듯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어느 박물관과 비교하여도 건축적으로 또 소장품으로 우리만의 강한 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패권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억압된 힘이 느껴지지 않는 박물관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유명한 박물관들 속에서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들을 모아 놓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도 지혜를 모아 더욱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소중한 유물들을 지키고 보여주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면, 앞으로는 도시와 시민에게 더 많이 열리고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박물관 뒤로 이어지는 용산가족공원으로의

where the sound of children's laughter always seems to be in the air. Spiraling around the Mirror Pond are the wide steps leading up to the Open Plaza of the museum. The path up these steps, amidst the splendid natural scenery, echoes the slow ascent of people searching for a mountainside temple. With every visit, people seem to encounter the space of the museum anew, a tribute to the architect's composition, which was devised to give visitors a fresh appreciation of the environment and principles of their Korean ancestors. Indeed, the space and environment have been there for ages, long before the visitors came to the museum.

Passing through the Open Plaza, visitors enter the exhibition galleries, which are reminiscent of familiar buildings and houses on city streets. People may not be able to see every exhibition each time they come, but encountering these other houses, they are encouraged to keep revisiting the museum.

Thus far, the museum has focused primarily on protecting and displaying its precious artifacts, but it is beginning to pursue new priorities of opening itself up to the city of Seoul and the people of Korea. To continue these efforts, in the future, the back of the



적극적이고 편안한 연결을 박물관 앞 숲만큼 중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야외전시장의 숲은 이제 적극적인 시민공원으로 정의하여 더 쉽게 시민의 산책길들이 연결되어야 하며, 더 많은 시민이 찾아 쉬고 또 즐길 수 있는 시민 편의 시설을 충분히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후세에 소중한 유물로 받아들일 수준으로 공공디자인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남산에서 용산공원으로 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연과 문화의 흐름을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개관 10주년을 맞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museum should be more fully integrated with Yongsan Family Park, just as the front of the museum connects with the forest. Furthermore, the museum garden, with its numerous statues and pagodas, should be more actively promoted as a public park to improve people's awareness of this beautiful green space. More walking paths, amenities, and facilities should be added to the area around the museum to bring in more visitors and improve their experience. In addition, the overall public design should be elevated to a level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embrace as a precious cultural heritage.

On this,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of the citizens, public officials, and specialists who love the museum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ongoing efforts to unify the flow of nature and culture from Mt. Namsan to Yongsan Family Park, and from the museum to the Han River.



Epilogue

국립중앙박물관, 2015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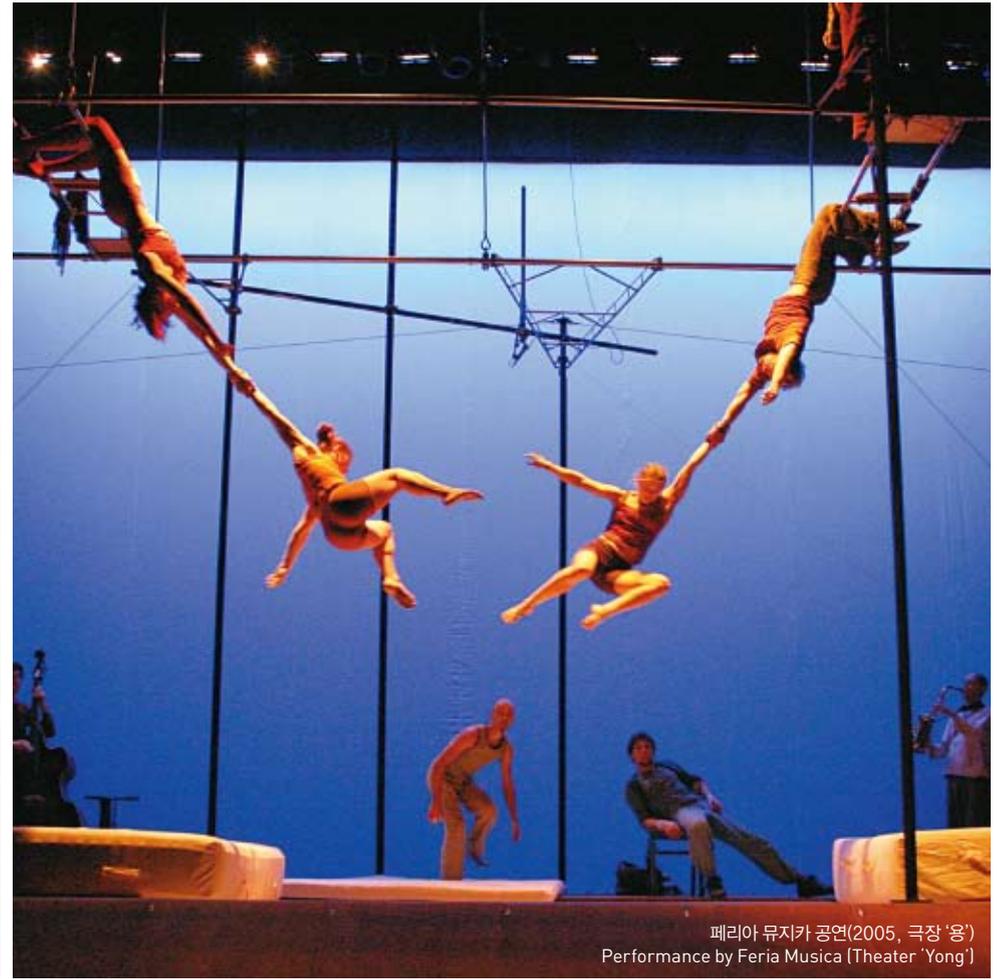


불교회화실
Buddhist Painting Room





황금의 나라, 신라(2013, 뉴욕)
Silla: Korea's Golden Kingdom (2013, New York)



페리아 뮤지카 공연(2005, 극장 '용')
Performance by FERIA Musica (Theater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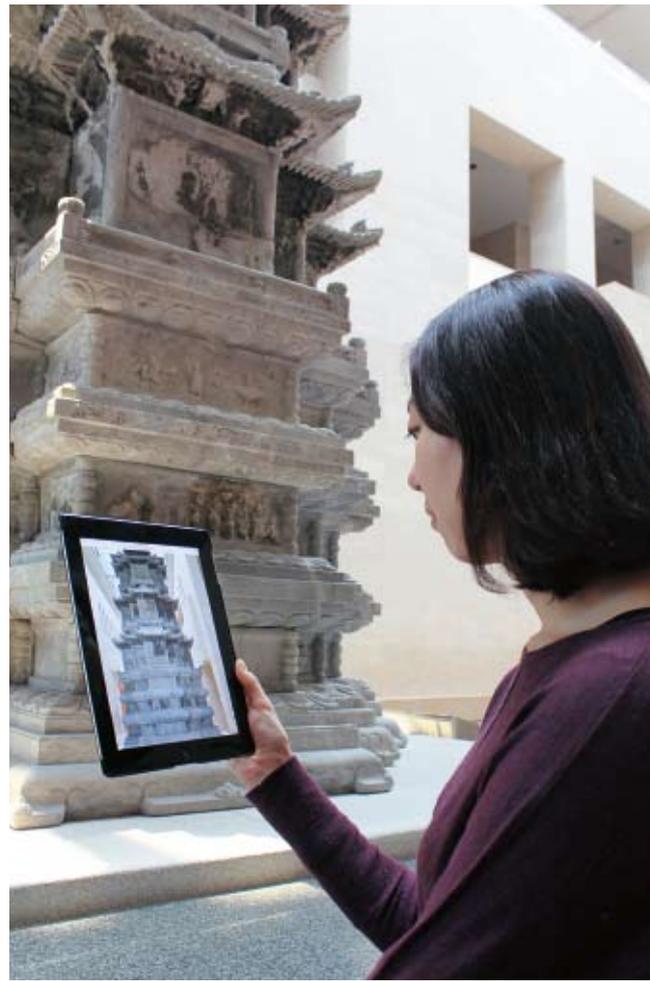
박물관의 미래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품 약 7천점의 고화질 이미지를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연구뿐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박물관의 정보들을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이다. 이외에도 해외 한국실 지원도 케도에 올랐고,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린 '황금의 나라, 신라'(2013)와 필라델피아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그리고 휴스턴 미술관에서 열린 '조선미술대전'(2014) 등을 비롯하여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전시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해외의 젊은 한국학 연구자들의 워크숍인 주니어 펠로우쉽 등도 역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여러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갖춘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추어 문화의 나라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2005년의 용산 이전은 광복 이후 70년의 역사에서 가장 뚜렷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학예연구직원만 약 80여 명(소속 지방박물관을 합치면 전체 160여 명)이며, 행정직을 비롯하여 청원경찰, 비정규직, 자원봉사자 등 모두 약 천 명 정도의 인원이

FUTURE OF THE MUSEUM

In 2013,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began allowing web users to download high-definition images of about 7,000 artifacts from its collection for free use. This new availability follows the government's policy that information from 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readily available to everyone. Around the same time, the museum's efforts to support Korean art galleries in museums outside Korea went into overdrive. The museum participated in several overseas exhibitions introducing Korean art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Silla: Korea's Golden Kingdom* (New York)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ew York, and *Treasures from Korea: Arts and Culture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2014), which toured several renowned museums in the U.S., including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ACMA), and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Furthermore, the museum also received tremendous attention for its Museum Network Fellowship, a workshop for young scholars of Korean studies in overseas programs. I firmly believe that all of these programs play a crucial role in elevating Korea's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활동이 벌어지는 전시실과 사무실 밖을 나서면 10년 동안 완전히 자리 잡은 화단의 꽃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트리고, 우람한 나무들 사이로 간혹 꿩이나 토끼도 눈에 띈다. 거울못에는 연꽃과 수련이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오리와 비단 잉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어 관람객들의 즐거움이 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시뿐 아니라 각종 공연이 개최되고, 산책이나 테이트 코스가 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쉽게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 박물관 직원들은 잘 알고 있다.

박물관은 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길 바란다. 문화 융성이 성별, 연령, 직업, 빈부의 차이 없이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면, 관람객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다가올 10년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며 늘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고자 한다.

international image as a country of culture, in accordance with our nation's rising status as a global economy.

Looking back at the past ten years, it is easy to see that the relocation to Yongsan in 2005 was truly a watershed moment in the seventy-year histor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museum currently has a staff of about 1,000 people, including approximately eighty curators, along with administrators, temporary staff members, security guards, and volunteers. Outside the busy galleries and offices of the museum, the atmosphere around the grounds of the museum is more peaceful, with countless flowers blooming year-round in gardens and flowerbeds that are now reaching full maturity after ten years. Strolling through the walking paths, visitors can sometimes spot pheasants and rabbits among the robust trees, while ducks and carp swim through the lovely lotus and water lilies in the Mirror Pond, which is always a crowd favorite. Every staff member of the museum deeply appreciates the privilege and joy of having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hich continues to evolve into a complex cultural space that features not only world-class exhibitions, but also leisurely nature walks and dating sites.

Every museum in the world ultimately aims to nurture the development and flourishing of all forms of culture, but every museum also has the goal of providing more people with easier access to the museum. As such, museums must strive to share the benefits of culture equally with all people, regardless of gender, age, occupation, or incom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diligently striving to provide all of our visitors with a more gratifying and engaging experience. For the next ten years and beyond,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ill continue to seek innovative ways to improve our service to and our communication with our visitors, in the hopes that our visitors' appreciation and love for us will continue to grow in equal proportion.



한식당 '마루'
Korean Restaurant 'M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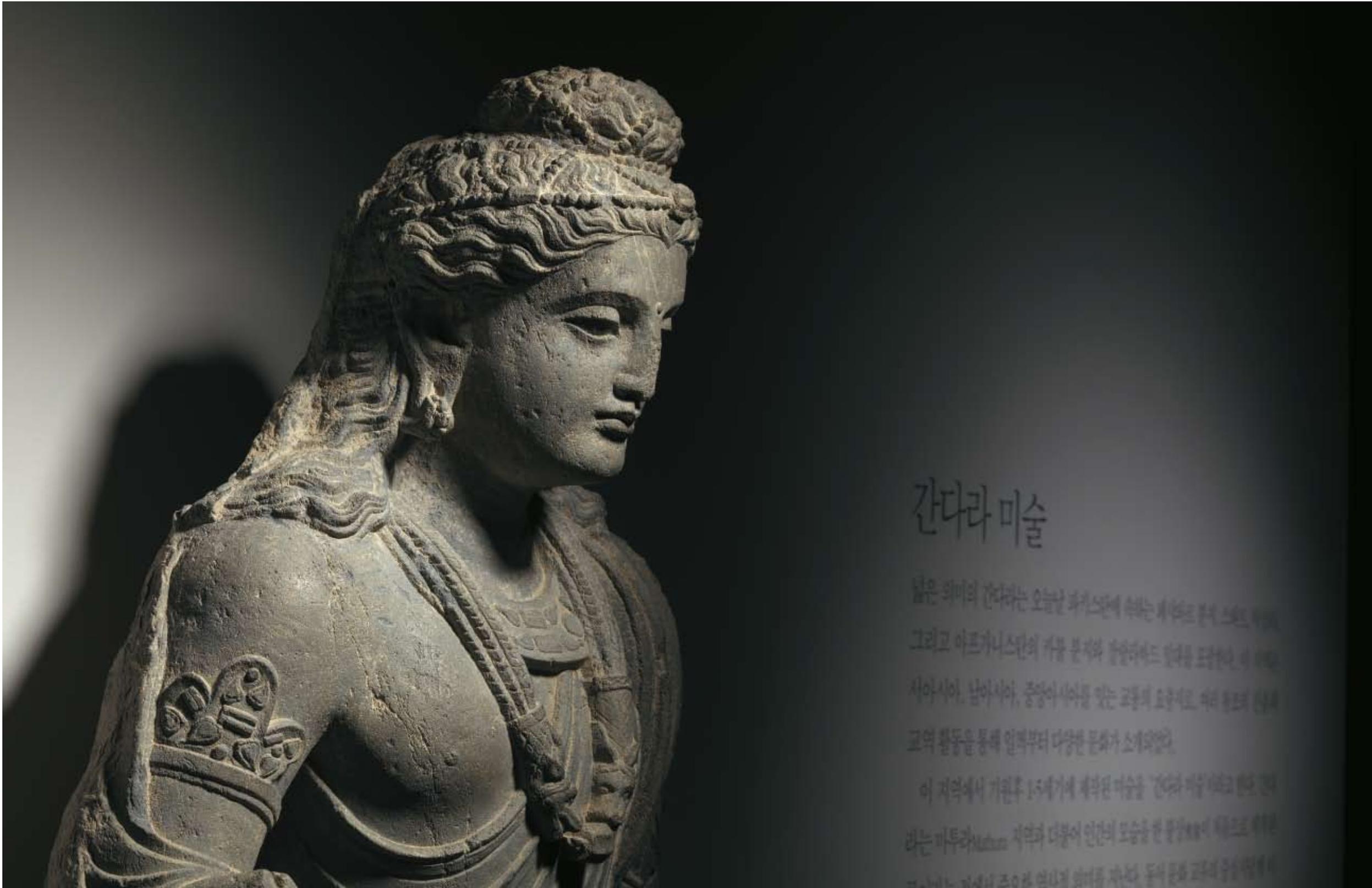


Collection

국립중앙박물관, 2015

THE FIRST TEN YEARS
IN YONGSAN

새로운 소장품 10선
New Acquisitions since 2005



간다라 미술

넓은 의미의 간다라는 오늘날 파키스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리스, 로마,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미술 문명과 불교의 영향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여러 문화권 간의 교역 활동을 통해 일찍부터 다양한 문화가 소개되었다.

이 지역에서 기원후 1세기경 제작된 미술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한다. 이 미술은 그리스와 더불어 인간의 모습을 본뜬 불상 형식이 특징으로, 특히 부처의 얼굴은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아서



금동불입상

金銅佛立像
통일신라 8세기 후반~9세기
높이 30.0cm
2014년 구입, 구9708

장중하고 위엄 서린 근엄한 얼굴에 살며시 자비의 미소를 머금은 불상으로 보석이 장식된 광배와 대좌가 원형 그대로 잘 남아있는 통일신라 불상이다. 얼굴이나 신체는 평면적인 반면 광배가 정교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불상에는 다양한 장식 기법이 총 망라되어 있는데, 이목구비의 경계선은 조각도로 파고(모조毛彫) 신체의 옷주름, 손금, 광배의 윤곽선 등은 삼각정으로 찍어 새겼으며(축조蹴彫) 이 삼각정 자국은 길이가 불과 1.5mm에 불과하다. 뒷머리와 등에는 안쪽의 흠을 긁어 낸 주조 구멍이 있고 목덜미 아래에는 광배와 연결한 축의 흔적이 있다.

광배에는 넝쿨무늬와 불꽃무늬를 투조透彫하였으며 머리 뒤의 연꽃 모양은 테두리를 따서 앞으로 살짝 틀리게 하였다. 수정으로 추정되는 보석은 꽃받침 장식에 감입한 후, 이를 긴 대에 연결하여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의 테두리에 못으로 고정하였다. 부착 방법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광배의 무늬나 보석 장식은 중국 절강성 영파寧波의 천봉탑天封塔에서 출토된 불상 광배 장식과 유사하다. 광배 하단 양옆 보석 장식 위에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두 손을 모은 비천飛天이 연결되어 있다. 경주 월지月池에서 출토된 화불化佛에도 보석이 부착되어 있어 이러한 장식기법은 통일신라 광배 장식의 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대좌 부분에도 보석이 감입된 꽃잎 모양의 장식이 남아있는데, 이를 대좌에 고정한 방식이 독특하다. 꽃모양 장식이 달린 원형 고리에 상대와 중대 부분을 끼운 후 이를 복련 형태의 하대에 결합하였다.

신소연

The Buddha's facial expression is quite solemn and dignified, with just the hint of a merciful smile. The facial features were delicately carved with a knife, while the folds of the robe, the lines of the palms, and the outlines of the background halo were engraved with a pointed chisel. Each tap of the chisel produced a mark that was only 1.5 mm in length, which demonstrates the masterful skill and elaboration that went into the production. There are two casting holes on the back of the head and body (respectively), through which the clay mould was removed. The figure is connected to the background halo by a tiny extension just below the back of the neck.

Both the pedestal and background halo are largely intact, with several gems still remaining in each. On the background halo, the gems are in the center of flower-shaped decorations, each of which was separately attached with rivets. Both of the two lowermost gem decorations are topped by a flying *apsara*, seated with one knee drawn up and hands clasped. The rest of the background halo is embellished with two different openwork patterns: a flame design surrounding a central scroll design. Behind the Buddha's head is a lotus decoration, with the tips of the petals bent slightly inward.

The pedestal is quite resplendent, with the upper and lower parts symmetrically shaped like upturned and downturned lotus petals, respectively. Between the two is an ornate ring with jeweled flower decorations inserted.

Shin Soyeon





나전 장식 경함

螺鈿 經函

고려 13~14세기

높이 22.6cm, 너비 41.9cm, 깊이 20.0cm

2014년 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증9291

고려는 귀족 계층이 정치 사회의 중심이 된 시대였다. 이에 따라 귀족 취향을 반영한 화려한 문화가 조성되었고 특히 공예 분야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이 중에서도 나전칠기는 고려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외국에 보내는 예물이었고 송나라의 사신使臣이 귀하다고 극찬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지금도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 미술을 대표하는 공예품으로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경함經函이 바로 고려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경함은 불교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함이다. 고려에서는 1231년 몽고 침략 이후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면서 많은 대장경大藏經을 제작하였고 이를 보관하는 경함 역시 활발하게 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하는 고려시대 나전경함은 전 세계에 단 9점뿐이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경함 한 점만 남아있다.

이 나전경함은 뚜껑 윗부분의 모서리를 모죽임하여 부드러운 느낌이 나도록 만든 상자 형태로 자개와 함께 금속선을 사용하는 고려 후기 나전칠기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자개를 얇게 갈아 무늬대로 혹은 가는 선으로 잘라낸 후 하나하나의 조각을 조합하여 모란당초무늬, 귀갑龜甲무늬, 연주連珠무늬 등을 만들어 경함 전체를 장식하였다. 특히 규칙적이면서도 율동적으로 표현된 450여 송이의 모란꽃무늬는 가는 선각線刻으로 세부를 표현하여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모두 2만 5천여 개의 작은 자개 조각을 사용한 이 경함은 고려 나전칠기, 나아가 고려시대 공예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황지현

Sutra Box Decorated with Mother of Pearl

Thirteenth to fourteenth century (Goryeo Dynasty)

Height 22.6cm, Length 41.9cm, Width 20.0cm

Gift of Friend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2014, jng 9291

An envoy from the Song Dynasty once famously praised Goryeo lacquerware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as an invaluable treasure. Indeed, lacquerware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forms of Goryeo crafts. Along with celadon and Buddhist paintings, it embodies the advanced artistic quality of the period.

This sutra box exemplifies the superior beauty and craftsmanship of Goryeo lacquerware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During the Goryeo Dynasty, Tripitaka (Buddhist scriptures) were produced in abundance, and accordingly, boxes like this were frequently made to store and protect them. Today, however, only nine Goryeo sutra boxes decorated with mother-of-pearl have survived, and this is the only extant one in Korea.

This sutra box is decorated with both mother-of-pearl and metal wires. The mother-of-pearl was thinly shaved and then cut into fine strands or into the shapes of patterns. Those small pieces were then assembled to make the three motifs that cover the box: peony scrolls, connected beads, and hexagons. In particular, the box features about 450 small peony designs, each of which is further delineated with fine line engravings, demonstrating the advanced skill and extreme intricacy of the production. In total, about 25,000 small pieces of mother-of-pearl were used to decorate the box, which epitomizes the beauty of Goryeo crafts.

Hwang Jihyun





지옥을 다스리는 왕

(제5 염라왕, 제8 평등왕, 제10 오도전륜왕)

十王圖

(第五閻羅王, 第八平等王, 第十道轉輪王)

고려 후기 또는 중국 남송

비단에 색(絹本彩色)

62.0×45.2cm(염라왕)

62.7×45.3cm(평등왕)

62.0×45.4cm(오도전륜왕)

2010년 구입

구7479(염라왕)

구7480(평등왕)

구7481(오도전륜왕)

Ten Kings of Hell

(The Fifth, Eighth, and Tenth Kings)

Late Goryeo Dynasty, or Southern Song Dynasty, China

Color on silk

62.0×45.2cm (Fifth King)

62.7×45.3cm (Eighth King)

62.0×45.4cm (Tenth King)

Purchased in 2010

koo 7479 (Fifth King)

koo 7480 (Eighth King)

koo 7481 (Tenth King)

불교의 사후세계관에 의하면 사람은 죽은 뒤 지옥에서 시왕十王, 즉 열 명의 왕에게 차례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시왕도이다. 자비로운 분위기의 다른 불화들과 달리 시왕도는 엄격한 심판과 무서운 형벌로 가득하다. 이러한 그림은 신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계도하는 한편, 죽은 사람의 유족에게는 죽은 사람을 위해 기원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이 시왕도 세 점은 각각 5번째 왕인 염라왕閻羅王, 8번째 왕인 평등왕平等王과 10번째 왕인 오도전륜왕道轉輪王을 그린 것이다. 본래 10점이었을 것이나 현재 9점만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전하며, 그 중 미국 개인 소장품이었던 세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이 구입하였다.

염라왕 앞에서는 옥졸이 죄인의 머리채를 잡고 생전에 살생한 죄업을 보여 주며, 평등왕의 앞에는 큰 저울이 있어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듯 정확하게 심판함을 암시한다. 마지막 왕인 오도전륜왕은 ‘다섯 길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이름의 의미처럼 죽은 사람들을 승려, 남자, 여자, 축생 등 윤회의 길로 다시 보내고 있다.

이 시왕도는 중국 남송대에 닝보[寧波] 지역에서 제작된 시왕도의 전형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배경을 생략한 공간 구성, 온화한 색채는 중국의 시왕도와 다르며 특히 금니선과 금니 문양에서는 고려불화의 특징이 엿보여 주목되는 불화이다.

박혜원

According to Buddhist faith, after death, people will face judgment from the ten kings of the underworld. This belief spawned an entire genre of Buddhist paintings known as “*Siwangdo*” (十王圖), which graphically portray the ten kings issuing harsh judgments and brutal punishments to the souls of the deceased. These rather frightful works stand out among Buddhist paintings, which generally convey a very peaceful and merciful ambience, as they were intended to dissuade people from immoral actions and to inspire the living to pray for the deceased.

These three *Siwangdo* paintings depict the fifth king (King Yama), eighth king, and tenth king. They were originally part of a set of ten paintings, but today only nine of the paintings are extant, and they are scattered in different place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urchased these three paintings from a private collector in the United States.

While King Yama looks on, a warden pulls a man’s hair and forces him to watch scenes of his sins and transgressions. A large scale is placed before the eighth king, indicating that the judgment process involves weighing the misdeeds of the deceased against their moral actions. Finally, the tenth and final king assigns people to various reincarnations as animals, ordinary men and women, or monks, in accordance with his name, which means “king who turns the wheel of the five paths of rebirth.”

Park Hyewon



第五閻羅王
Fifth King



第八 平等王
Eighth King



第十 五道轉輪王
Tenth King

금동보살좌상

金銅菩薩坐像

14세기 말~15세기 초
높이 74.7cm
2009년 구입, 구6241

동그란 얼굴에 이목구비가 또렷하며 화려한 장신구를 온 몸에 걸친 고려 말~조선 초 보살상이다. 직선적인 콧대와 날카로운 코끝, 꼭 다문 입술은 다부진 인상을 남기며, 가슴과 배의 경계를 인위적인 선으로 표현한 것은 도식화된 당시의 조형감각을 보여준다. 보살상은 청동에 옷칠을 하고 그 위에 금박을 입혔는데, 옷칠의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1370~1485년으로 보살상의 제작 연대가 고려 말 조선 초임을 뒷받침한다.

머리에 썼던 보관은 남아있지 않고, 머리카락은 위로 올려 묶었으며 두 어깨 위로는 귀를 감싼 머리카락이 흘러내린다. 목을 앞으로 빼고 고개를 살짝 올렸으며 등에서 가슴까지의 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둔중한 느낌이다. 옷자락 밖으로 손발이 드러났는데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린 채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손모양은 고려시대부터 아미타불상과 보살상의 수인으로 유행하였다. 보살상은 불상의 대의(大衣) 형식의 옷을 입고 있으며 왼쪽 무릎 위에 옷자락을 늘어뜨렸다. 가슴 부분과 하반신의 장신구는 이어져 있지 않고 손목에는 팔찌를 찻으며 배 부분에는 허리띠로 군의(軍衣)를 묶었다. 일본 후묘지(普明寺) 소장 고려시대 금동보살좌상은 얼굴이 가름하고 신체 비례나 장신구의 세부 문양이 다르지만, 가슴의 표현이나, 착의법, 팔찌의 형태 등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과 유사하다.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우아한 고려시대 보살상 형식을 계승했지만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신체 비례, 그리고 복잡한 장신구 등은 고려 말~조선 초 보살상의 매너리즘적인 표현을 보여준다.

신소연

This gilt-bronze seated bodhisattva, made in the late Goryeo or early Joseon period, is characterized by its various ornate accessories and the distinct features on its round face, including the straight nose and tightly closed lips, conveying a firm countenance. The overall aesthetics are schematic, as demonstrated by the straight line clearly demarcating the chest and belly. The bronze sculpture was lacquered and then coated with gold leaf. Radiocarbon dating of the lacquer showed that it was applied some time between 1370 and 1485 CE.

The sculpture once had a crown, but it has been lost. The head is slightly raised, the neck is craned, and most of the hair is pulled back and tied up, with the exception of two thin braids that fall down across the shoulders. From the side, the figure looks rather wide from back to chest, giving it a stout form. The thumbs and middle fingers of both hands are held very close together, forming the characteristic mudra (hand gesture) of Amitabha Buddha and bodhisattvas, a common feature of sculptures since the Goryeo period.

The figure wears an outer robe that resembles the type worn by Buddha statues, along with a skirt-like cloth wrapped around the belly and tied with a band. The outfit is adorned with accessories and jewels on the chest, belly, wrists, and lower body. The elegance of the sculpture follows the tradition of Goryeo bodhisattva statues, but its unnatural pose, proportion, and lavish accessories are more characteristics of bodhisattva statues from the late Goryeo or early Joseon period.

Shin Soyeon





김치인 72세 초상

金致仁(1716~1790) 肖像
 이명기李命基(1756~1802 이후)
 조선朝鮮 1787년
 비단에 색(絹本彩色)
 177×71.5cm
 2012년 구입, 구9354

‘터럭 한 올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로 조선시대 초상화를 설명한다. 그만큼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린 것이다. 이러한 사실적인 초상화로 가장 유명한 이는 정조연간(正祖年間) 활동했던 화가 이명기다. 그는 정조 어진(御眞)에서부터 대신(大臣)들의 초상, 초상화 모사(模寫)까지 두루 업적을 남겼던 왕실 화원화가다.

이 초상화는 이명기가 32세 때 그린 것으로, 모델이 된 사람은 72세의 김치인(1716~1790)이다. 머리에는 사모(紗帽)를 쓰고 관복(官服)을 입었으며, 서대(犀帶)를 착용하였다. 무소의 뿔로 만든 서대는 정1품 이상의 높은 관료들이 차는 허리띠다. 학 두 마리를 수놓은 흉배는 당상관의 품계를 보여 준다. 표범 가죽(豹皮)이 깔린 의자 위에 앉아 두 발은 족좌대 위에 올렸다. 옷은 풍성하게 그리고, 주름을 잡은 뒤 입체감을 살려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강한 필묘법과 음영법이 특징인 이명기의 대표적인 초상화들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그렸으며,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정조가 내린 찬문이 있어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화면 위에는 초상화의 주인공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일본 텐리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반신상〈김치인 초상〉을 통해 주인공이 김치인임을 알 수 있다.

민길홍

During the Joseon Dynasty, it was said that, “If a portrait has even a single hair that is not faithfully depicted, then it is not a true portrait of the person.” As such, in their portraits, Joseon artists endeavored to capture the person’s likeness as accurately as possible. This reverence for realism is epitomized by the lifelike portraits of Yi Myeonggi (李命基, 1756-after 1802), a court painter who was the most renowned portraitist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r. 1776-1800).

Yi was 32 years old when he painted this portrait of Kim Chiin (金致仁, 1716-1790), who was 72. The official robe and the belt made of rhinoceros horn indicate that the sitter is an official of the highest rank. A leopard skin is draped across the back of the chair, and Kim sits with both feet on a footrest. The identity of the sitter was confirmed through comparison with Portrait of Kim Chiin, now housed in Tenri University, Japan.

Yi Myeonggi’s portraits are generally characterized by bold lines and shades, but this portrait has a much softer feel. The great significance of this masterful portrait is enhanced by the inscriptio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which was written by King Jeongjo. In it, the king compares Kim to Sima Guang (司馬光, 1019-1086), a historian, scholar, and high chancellor of Northern Song, China. The inscription can be translated as follows:

Min Kilhong

七十二歲眞 李命基寫
 御贊 精神所注皓髮颯爽起自
 洛波元老之像 上之十一年丁未三月二十九日 宣下

72세 초상이다. 이명기李命基가 그렸다. 임금님께서 지은 화상찬(畫像贊)은 다음과 같다. 정신을 쏟아 머리털 희어졌어도 시원하고 씩씩한 모습은 낙파(洛波)에서 기용된 원로(司馬)를 닮았도다.

주상 전하의 재위 11년째인 정미년 3월 29일에 선유(宣諭)하며 내리셨다.

This portrait of the 72-year-old sitter was painted by Yi Myeonggi. The following are comments of praise from the king.

“His hair is going gray because he puts his whole heart and soul into his work. Nonetheless, his brave, uninhibited look is reminiscent of Sima Guang from the Luobo faction (洛波).”

The king graciously wrote this on the third month, twenty-ninth day of 1787, the eleventh year of his reign.





북 받침대

法鼓臺
조선후기
나무
높이 130.0cm
2014년 구입, 구9709

사찰에서 아침·저녁의 예불禮佛이나 의식에 사용하는 큰 북(법고法鼓)을 올려놓던 받침대이다. 현재 북은 없고, 연잎 모양의 북받침과 연결 부분인 간주竿柱, 전체 하중을 받는 사자 모양의 좌대座臺만 남아있다.

법고는 사찰에서 소리를 내어 의식의 내용과 절차를 표현하는 법구法具로, 북소리가 널리 퍼지듯 불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 것을 상징한다. 고루鼓樓라는 전각 안에 봉안하며, 천정에 끈으로 매달거나 법고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였다.

좌대는 사자를 형상화한 동물의 모습으로, 등 위에는 안장이 걸쳐져 있다. 안장 가운데에는 연꽃모양의 자리 안에 간주를 꽂게끔 되어 있다. 간주 위에는 연잎 모양의 받침이 있어 그 위에 북을 올렸다. 사자의 머리, 몸통, 꼬리, 간주, 북받침 모두 별개의 부재로 만들어 끼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자는 네 발로 땅을 딛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생동감이 넘친다. 뺨 뚫린 콧구멍과 앙다문 입 사이로 드러난 뽀족한 빠드렁니는 익살과 해학이 넘친다. 눈에는 수정알을 박아 눈동자를 표현했는데, 한쪽이 빠져 빈 상태이다. 입 주변과 머리 위쪽, 다리 앞쪽에 갈기를 표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주칠朱漆을 했으나 대부분 박락되어 부분적으로만 채색이 남아있다.

유경희

Buddhist Drum Stand
Nineteenth century (Late Joseon Dynasty)
Wood
Height 130.0cm
Purchased in 2014, koo 9709

Buddhist temples often have large drums that are used to sound the morning and evening calls, or as part of other ceremonies. The deep, resonant sound of the drums symbolizes the wide reach of Buddhism, as it spreads throughout the world. Buddhist drums are usually either hung from the ceiling with a strap or placed in a stand, such as this one. The drum that was once held by this lion-shaped stand has now been lost.

The animal, which is meant to represent a lion, has a saddle on its back. In the center of the saddle is a carved lotus flower, where a small pillar rises up to a cupped support where the drum would have been placed. Each part (i.e., the head, body, tail, pillar, and stand) was made separately and assembled.

Standing firmly and staring straight ahead, the lion looks very alert and vibrant. The flared nostrils and sharp fangs extending out over the closed lips convey a whimsical sense of candor and mirth. There were originally two crystals inserted to represent the pupils, but one of them has been lost. The lion's mane and fur are expressed around the mouth, the upper part of the head, and the front of the legs. The stand was originally painted red, but much of the paint has either faded or flaked off, so that the red color can only be seen in certain areas.

Yu Kyunghee





보살상

菩薩像

간다라, 2~3세기
편암
높이 116.8cm
2008년 기증, 증7013

아름다운 젊은 청년을 마주한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상은 간다라 지역에서 제작된 보살상이다. 균형 잡힌 이목구비, 이상적인 신체 비례, 사실적인 세부 묘사가 돋보인다. 팔, 다리 일부가 파손되고 코 부분이 약간 손상되었지만,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간다라는 오늘날 파키스탄에 속하는 페샤와르 분지, 스와트, 탁실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분지와 잘랄라바드 일대를 포괄한다. 인도문화권에서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가장 잦았던 지역으로, 지중해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문화가 유입되었다.

기원후 1세기경 간다라와 마투라 지역에서는 부처를 보리수, 스투파 등의 상징물로 표현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했다. 1~5세기에 활발히 제작된 간다라의 불상은 그리스, 헬레니즘 이외에도 마투라, 로마, 서아시아 파르티아 미술의 영향이 복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 상이 표현한 '보살'은 원래 깨달음을 얻기 전의 석가모니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를 가리키게 되었다. 보살은 세속인 가운데 가장 고귀한 신분의 인물을 모델로 했기에 이 상에서와 같이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모습으로 표현된다.

김혜원

With its balanced facial features, ideal body proportions, and highly realistic details, this sculpture gives viewers the feeling of encountering a beautiful young man. Although the arms, legs, and nose have been partially damaged, the statue has retained its imposing and dignified appearance.

“Gandhara” encompasses the Peshawar basin in northern Pakistan and the Kabul basin in northeastern Afghanistan. The earliest Buddhist sculptures represented Buddha only through symbols, such as stupas or Bodhi tree, but around the first century CE, people in Gandhara and Mathura began to directly depict Buddha in human form. Gandhara Buddhist statues produced in the first through fifth centuries demonstrate the convergence of many different influences, ranging from Greek and Hellenistic art to the art of Rome, Mathura, and the Parthian Empire of West Asia.

This statue visualizes a bodhisattva, a term that originally referred to Shakyamuni prior to his enlightenment. With the rise of Mahayana Buddhism, however, the term came to indicate sentient beings that simultaneously pursued both individual enlightenment and the salvation of all sentient beings. Bodhisattvas were modeled after members of the noblest class of secular people, and were thus generally depicted wearing resplendent accessories and jewels, as seen here.

Kim Haewon





관음보살상

觀音菩薩像

네팔, 14세기

금동

높이 30.7cm

2008년 구입, 구5261

금빛을 발하며 우아한 자세로 서 있는 이 상은 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을 형상화한 것이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의 마음이 아래를 향한 시선과 여원인(與願印, 즉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겠다는 손짓춤을 통해 잘 전달된다.

조형적인 면에서 보면, 네팔 불상 특유의 넓은 얼굴, 긴 눈매, 매부리코가 조화를 이루며, 부드러운 피부와 신체 굴곡이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인 머리와 왼쪽으로 뺀 허리가 만들어낸 유연한 삼곡(三曲) 자세는 오른쪽으로 뺀 두 손, 왼쪽 아래로 살짝 뺀 옷의 끝자락과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다채로운 준보석으로 장식한 높은 관, 목걸이, 팔 장식은 화려함을 더한다. 왼손은 원래 연꽃을 들고 있었지만, 현재 이 부분은 손실되었다.

인도와 티베트 사이에 위치한 네팔에서 제작된 불교미술은 인도의 영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특징을 발전시켰으며, 절정기인 11~14세기에는 티베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지역의 금동상(金銅像)은 동(銅)의 함량이 높아 청동 부분이 붉은빛을 띠며, 이는 금박이 벗겨진 부분에서 볼 수 있다.

김혜원

Representing Bodhisattva Avalokiteshvara, the embodiment of compassion, this statue strikes a graceful pose and emanates a brilliant gold color. The bodhisattva's mission of rescuing all sentient beings through compassion is conveyed through the cordial downcast eyes and the *varada mudra* (or wish-granting *mudra*).

In terms of aesthetics, there is a pleasant unity between the wide face, elongated eyes, and hooked nose, all of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Nepali Buddhist statues. In addition, the smooth skin and sensuous curves of the body are distinctly expressed. The figure achieves perfect harmony with its *tribhanga* (tri-bent) pose, with the outstretched right arm balanced by the extended tips of the clothing on the lower left. The overall pageantry is enhanced by the sparkling gemstones decorating the tall crown, necklaces, and arm accessories. The left hand originally held a lotus flower, but it has been lost.

Gilt-bronze sculptures produced in the Nepali region, located between India and Tibet, generally contain a high percentage of copper. Accordingly, the bronze has a reddish hue that can be seen in the areas where the gold leaf has exfoliated.

Kim Haewon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놀이 풍경

邸内遊樂圖

일본 에도(江戸), 1624~1645년 경
6곡 1쌍(六曲一雙), 종이에 채색(紙本彩色)
세로 88.5cm, 가로 281.0cm
2012년 구입, 구8561

저내유락도란 화려한 저택 내부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그린 일본 풍속화(風俗畫)의 한 종류이다. 에도시대 공방(工房)에서 제작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6폭으로 이루어진 2개의 병풍에 2층 누각과 연못, 목욕탕을 갖춘 일본 유곽(遊廓)과 정원을 그렸다. 그곳에는 칼을 찬 무사(武士)와 승려, 유녀(遊女)들이 어울려 실내에서 각종 놀이를 즐기는 광경이 펼쳐져 있다. 저택의 입구에서는 담을 사이에 두고 말과 가마를 지키며 주인을 기다리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는 종자들과 정원에서 역동적으로 군무를 추는 사람들이 대비된다. 군무의 율동과 악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자아내는 활기가 생생히 느껴진다. 건물 안에서 샴시센(三味線) 연주, 쌍륙(雙六)놀이, 글씨를 감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군자가 금기서화(琴棋書畫)를 즐기는 전통을 변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장기(將棋)를 두며 다투는 이들과 서양 놀이의 일종인 카르타(carda)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대비 또한 이채롭다. 이처럼 한바탕 놀이를 즐기다 피곤해지면 차를 마시거나 증기(蒸氣)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며 기분전환을 했을 것이다. 저택 곳곳의 벽과 미닫이문에 수목과 금쵸(金鍾)로 그린 화려한 벽화는 그림 속의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를 더해준다.

이 병풍은 17세기 초 일본 풍속화의 배경이 야외에서 실내로 옮겨가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향락을 추구하며 현세를 즐겼던 에도시대 상류계층과 온갖 기예를 익혀 그들을 대접했던 유녀들의 모습을 금과 풍부한 색채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정미연

Merrymaking in a Grand Mansion

c. 1624-1645 (Edo Period, Japan)
Pair of six-panel screens, color and gold on paper
Length 88.5cm, Width 281.0cm
Purchased in 2012, koo 8561

Merrymaking in a Grand Mansion exemplifies a type of Japanese genre paintings, depicting people playing various games and having fun in a stately house. The house in this work includes a two-story pavilion, a pond, and a bath. At the entrance of the mansion (on the viewer's right), outside the gates, servants are tending to the horses and palanquins, in contrast with their masters on the other side of the wall, who are exuberantly dancing in the garden. In different areas, people can be seen playing the *shamisen* (three-stringed instrument), playing a board game similar to backgammon, and appreciating calligraphy. Notably, these activities represent a Japanese appropriation of the Chinese tradition of *qingqishuhua* (琴棋書畫), or the four arts of the literati: playing the six-stringed zither, playing go, calligraphy, and painting. An interesting contrast can be seen between the quarrelsome people playing the traditional Japanese board game and the people who are absorbed in a hand of *karuta*, a card game of Western origin, the name of which is derived from the Portuguese *carta*, meaning "card." When they become tired from carousing or playing their games, the people can refresh themselves by drinking tea or taking a revitalizing steambath in the sauna.

With its rich, gold colors, this folding screen captures the idyllic life of the pleasure-seeking upper class of the Edo Period, as well as the professional women who entertained them through various arts.

Jung Miyeon





일본군을 정벌하는 그림

征倭紀功圖屏

일본(추정), 19세기
비단에 색(絹本彩色)
세로 174.0cm, 가로 370.0cm
2011년 구입, 구8559

정유재란의 마지막해인 1598년에 조·명 연합군은 한반도 남부의 일본군 거점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 전라도에서는 순천왜성과 노량바다, 남해도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임진왜란으로 시작된 7년 전쟁은 막을 내린다.

이 그림은 이때 일어난 여러 사건을 여섯 면의 화폭 위에 시간의 흐름과 지리적 배열에 따라 배치한 병풍 그림이다. 다양한 사건들이 오른쪽에서 시작하여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 병풍그림은 원래 시간상 앞선 장면이 그려진 다른 병풍과 함께 한 쌍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림 전체에 보이는 금채의 표현과 병풍의 제작기법 그리고 그림 속 건물의 표현이나 인물의 묘사에서 전형적인 일본 회화의 기법이 나타난다. 원래 정유재란 전투에 직접 참전한 명나라 종군화가 그랬다고 하는 ‘정왜기공도권’이라는 중국 그림을 바탕으로 후대에 일본 화가가 병풍그림으로 다시 그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울산성 전투를 그린 병풍그림도 남아 있어 임진왜란에 참전한 일본의 봉건 제후 등이 자신의 공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그림을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수

Defeat of Japanese Invaders

Nineteenth century or later (attributed to Japan)
Six-panel screen, ink and color on silk
Length 174.0cm, Width 370.0cm
Purchased in 2011, koo 8559

In 1598, the last year of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the allied forces of Joseon (Korea) and Ming (China) carried out large-scale attacks on Japanese bases in southern Korea. Great battles took place in Suncheon Japanese Castle, Noryang Point, and Namhaedo Island, bringing an end to the seven-year conflict of Japan's invasions of Korea.

This six-panel folding screen features paintings of various incidents and battles from the period, arranged both chronologically (from right to left) and geographically. It is estimated that this screen was originally paired with another folding screen that showed earlier events. The use of gold paint, the production details of the folding screen, and the depictions of buildings and people exemplify the style and technique of traditional Japanese paintings. This painting is thought to be a Japanese copy of the original Chinese scroll painting of *Defeat of Japanese Invaders*, which was painted by a military artist of the Ming army who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battles. Currently in Japan, there is also another folding screen painting, produced around the same time, which depicts the battle of Ulsan Castle. Such works were probably commissioned or produced by Japanese feudal lords who participated in the invasions of Korea, as a way of commemorating or advertising their military exploits.

Han Soo





海軍大統

水路大將隊

各營大統

劉大統三統領

편저

김영나

진행

연구기획부

원고

김영나, 박승홍, 권문성
김혜원, 민길홍, 박혜원, 신소연,
유경희, 정미연, 황지현, 한수

번역

필립 마허, 박명숙

제작 및 디자인

(주)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인쇄

(주)삼성문화인쇄

발행일

2015년 1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
140-797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el. 02-2077-9000
<http://www.museum.go.kr>

이 책의 저작권 및 법적 권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81641-21-4 93060

Editor

Kim Youngna

Coordinator

Research and Planning Department

Authors

Kim Youngna, Bak Seunghong, Kwon Moonsung
Kim Haewon, Min Kilhong, Park Hyewon, Shin Soyeon,
Yu Kyunghee, Jung Miyeon, Hwang Jihyun, Han Soo

Translators

Phillip Maher, Park Myoungsook

Design and Production

GNA communication

Printing

Samsung Moonwha Printing co., Ltd.

Published by

National Museum of Korea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140-797
www.museum.go.kr

Copyright 2015.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or mechanical, including photocopying, recording or any other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irst Edition, 2015-1-30
Printed in Korea



매년 3백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면서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박물관의 지향점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박물관이 고답적이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관람객 중심의 열린 박물관으로 변화하고자했던 지난 10년의 노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Having greatly increased its domestic reputation and popularity, the museum has now turned its eyes toward its next goal of becoming a renowned global institution befitting the twenty-first century. This book introduces the museum's diverse efforts over the past ten years to break away from the public perception of a museum as a dull, highbrow institution and to transform itself into an attractive, visitor-centered, open museum.

ISBN 978-89-81641-21-4



9 788981 641214

93060

